



코트디부아르 강우 증가, 코코아 중간작 생산 전망 개선

(Heavier rains in Ivory Coast boost cocoa mid-crop, farmers say)

코트디부아르 주요 코코아 재배 지역에서는 지난주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 이하 수준이었으나, 이전 주들보다 강우 강도가 개선되면서 3~8월 진행되는 중간작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농가들은 전망하였다.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우기(4월~11월 중순)에 해당하지만, 농가들은 주요 재배 지역 간 강수 분포가 아직 고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.

이란 전쟁발 비용 상승, 식량난 겪는 수단 농업에 추가 위협

(Iran war poses new threat to harvests in hunger-stricken Sudan)

수단 전역의 농가들은 이란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연료 및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여름 파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이미 전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수단의 식량 생산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수단 각 지역 농가 8명과 관련 전문가들은 연료·비료 가격 상승이 내전으로 인한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, 수수와 기장 같은 주요 식량작물뿐 아니라 참깨 등 수출 작물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루블화 강세와 농가 판매 부진으로 러시아 밀 수출가격 상승 지속

(Russian wheat export prices rise again on strong rouble, low farmer sales)

국제 밀 가격 상승과 루블화 강세, 그리고 농가들의 판매 부진이 지난주 러시아 밀 수출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한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했다. 컨설팅업체 IKAR의 대표 드미트리 킬코에 따르면, 단백질 함량 12.5% 기준 러시아산 밀의 6월~7월 초 인도 조건(FOB) 가격은 지난주 말 기준 톤당 245달러로 전주 대비 5달러 상승하였다.

러시아 해상 곡물 수출, 4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

(Russia's seaborne grain exports double in April)

월요일 발표된 업계 관계자들의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, 러시아의 4월 해상 곡물 수출량은 49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번 시즌 누적 해상 수출량은 현재까지 총 4,600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전년 대비 7.4% 증가한 수준이다.

출처: Thomson Reuters